

섬유 웰빙화로 황토섬유 개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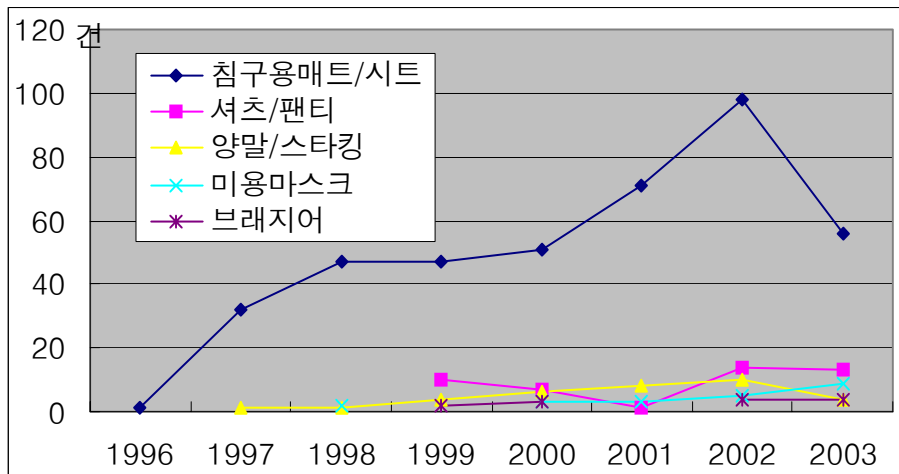
원적외선 방출하며 신진대사 촉진 ... 기능성 내의에 미용마스크 적용

섬유에 황토로 염색 또는 코팅을 한 황토섬유가 원적외선 및 신체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기술 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황토섬유 관련특허 출원이 1996-2003년 총 517건을 기록했으며 최근 3년간 300건이 출원돼 전체 출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는 한복에 황토고유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 염색하는 용도로 주로 적용됐으나 원적외선 방출과 소취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기능성 내의류·미용마스크·양말·매트 등에 적용되며 관련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황토섬유제품 관련특허 출원동향



출원비중은 침구용 매트 및 시트가 403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말 및 스타킹이 약 7%, 미용 마스크가 4%를 점유하고 있다.

염색방법으로는 롤러에 감겨진 원단을 염액(매염제, 황토염료, 물) 속에 통과시켜 염색하거나 원단을 회전 알레에 걸고 무긴장상태로 이동시켜 염색하기도 하며, 회전원단에 염액을 분사시키는 방법, 염액·안료 혼합액을 직물위에 코팅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로써 원적외선 방출 및 소취 기능과 아울러 향균, 항 알레르기 등 추가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한편, 국내 황토섬유 제조기업은 황토에 섬유를 부착시켜 식물의 재배숙성을 향상시키는 식물재배용 배지를 개발하고 있어 황토섬유 개발이 식물개량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8/27>